

수능완성

리포트

독서

PROLOGUE

사라진 비문학 연계 체감...

그 체감을 되찾게 해줄 최후의 한 권

“만약에 수능에서 3문단 정도를 생략할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비문학은 수능 국어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문학처럼 연계 체감이 되지도 않고, 화작문처럼 비교적 쉽게 읽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문학 지문은 난생 처음보는 토픽들로 이루어진데다가 엄청난 정보량을 포함하고, 문제들마저 세부적인 정보를 묻거나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2019수능은 그야말로 뒤통수의 연속이었습니다. 한번 회상해 봅시다. N수생들은 작년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시고, 고3학생들은 학교에서 내로라하던 선배들이 무너지던 그 악몽을 떠올려 봅시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수능에서 3문단 정도를 생략할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누구나 많은 것을 걸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연계입니다. 작년 비문학 지문 3개 중 2개가 연계 지문이었고, 그 지문의 핵심 내용이 수능특강/완성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역대급 난이도의 19번, 42번 모두 문제 주제가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지문을 공부하면 100% 확률로 연계를 체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지문을 공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체력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지 않죠.

재수를 하면서 비문학 배경지식 교재가 없다는 것이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수특 지문 자체를 분석하거나, EBS와는 먼 지식을 다루고 있었죠. 마땅한 교재를 재수 내내 찾았으나, 끝내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올해 직접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EBS 분석서 ㄹㅇㅍㅌ는 시간대비 고효율을 보장합니다. 새로운 주제, 확장 가능한 주제, 알아두면 좋을 주제를 30개 선정하여 본문과 함께 배경지식을 정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지문의 주요 제재를 정리하였고, 화작문의 특이 제재까지 정리하여 수능에서 연계 지문이 나왔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수능 국어에 대해서

수능은 객관적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정규 학업과정을 마친 학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국어의 경우는 크게 화작문, 문학, 독서로 나뉘며, 독서의 난도가 가장 높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독서의 경우는 2019학년도 수능 국어 31번에서와 같은 정답률이 19%인 초고난도 문제가 나온 것에서 그 난이도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평가원의 질답 내용에서 “초고난도 문제는 지양하겠다”라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고난도 문제 여러 문제를 내어서 변별력을 확보해도 된다고 역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독서영역에 대한 심층적 대비가 필요한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독서영역을 대비해야 할까요?

독서영역을 대비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높은 독해 능력이겠죠. 독해 능력의 향상은 국어 영역 고득점을 위해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가장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독해란 무엇일까요?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글을 읽어서 뜻을 이해하는 것이다. 단어와 문장이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해 자료의 각 부분들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결합하여 만든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독해는 연계된 생각 속에 숨겨져 있는 구상적 활동이며, 말하기와는 달리 실제 사회적 활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심리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독해 [讀解, reading comprehension]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2009., 국립특수교육원)

요약하면, 글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개인적인 활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면, 독해 능력을 늘리면 독서를 잘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의 독해력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생소한 개념은 단어부터 모르고, 그러면 문장을 읽어도 기억에 남지 않죠. 독해력을 늘리기 위해선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데, (학창시절 책을 많이 읽는 학생은 적으므로) 이는 시간 소모가 큰 행동입니다. 문제는 수능은 국어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수학, 영어, 탐구에 한국사까지 수험생의 관심을 요구하는 과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다독할 시간도 없고, 국어 독해 능력도 만족스럽지 못한 분들의 최후의 보루는 배경지식입니다.

물론 배경지식의 중요성은 모두가 알죠. 하지만, ‘적중’이 문제죠. ‘과연 도움이 될지’ 그 불확실성에 의해 배경지식을 무시하곤 하죠. 체감 연계가 되지 않는 걸 굳이 뭇 하러 시간을 쏟아가며 준비하느냐는 거죠.

잠시 평가원과 수험생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능은 1달도 넘는 기간 동안 국내 최고의 대학교수 300명, 교사 180명이 투입되고, 국가기관인 평가원부터 국가정보원, 경찰의 도움과 함께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대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그 결과물인 수능 시험지는 예술 작품이라 칭할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를 갖고 있으며, 그 방대한 양에 비해 오류도 거의 없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시험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인력이 몇 십 일동안 고심해서 낸 문제를 고등학생이 쉽게 푸는 것은 어려운 일인 건 자명합니다. 그런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평가원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게임으로 치자면 ‘평가원 밸런스’ 같은 느낌이죠.

바로 ‘EBS연계’와 ‘현실 반영’입니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험지의 적정량(70%)을 EBS 교재와 연계 되도록 출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했던 2019학년도 국어 중력지문 역시 연계지문이었습니다. 만약에 많은 수험생이 EBS만이라도 확실하게 봤다면 31번 문제의 정답률은 19%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해당 지문에서 연계된 부분은 한 문단 반 정도 되었고, 실제 수능에서 그 정도를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면, 많은 양의 시간이 세이브되겠죠. 그리고, 현실의 사실만을 제시하므로, 언제 어떤 학문을 공부해도 수능에 반영이 된다면 현실과 차이가 없기에 지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경지식의 중요성은 끊임없이 강조되곤 있었지만, 적중 확률의 문제로 전문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었죠. 하지만, EBS연계에 의해 적중률 높은 지문을 학습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학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본 교재의 일차적 목표는 적중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규 교육과정에 없는 생소한 개념이나, 새로운 내용, 더욱 포괄적인 설명이 필요한 지문을 선정하여 2020학년도 수능 시험에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수능은 제한된 시간 안에 보는 시험입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시간을 줄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화작문에서 답을 빠르게 찾는 방법, 영어에서 잘 짚는 ‘꼼수’ 방법은 찾아가면서 배우는 반면, 배경지식을 등한시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태도라 생각합니다.

어떤 교재인가요?

구성은 본 교재에 실린 문제는 0문제입니다. 순도 100% 텍스트입니다.

2020 수능능력시험 국어 영역의 연계 교재 중 “2020 수능완성 국어 영역”의 보다 심층적인 학습을 위한 교재입니다. ‘적중’을 위한 책은 아니므로 집중적으로 달달 외우며 공부하지 말고, 가볍게 읽어서 동일 토픽이 나올 때 눈에 익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만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야 하나요?

1~2등급: 시간 확보를 위한 배경지식을 쌓는 용도

3~4등급: 수능완성을 심도 있게 학습하는 용도

5등급 이하: 독해 실력 향상을 위한 용도와 배경지식 학습

물론, 굳이 등급에 따라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필요로 하는 목표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봐야 하나요?

정답은 없지만, 아래와 같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1) 수능완성을 봤다.

수완의 오답과 함께 어디서 놓쳤는지 확인하면서 내용 숙지

(2) 수능완성을 볼 건데 아직 안 풀었다.

수능완성은 모두 풀면서 본 책에 수록된 지문만 병행하여 학습.

(3) 수능완성을 안 볼 것이다.

이 책으로 수능완성 독서지문 분석을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연계 체감의 확률은 떨어지지만, 도움은 확신합니다.

세부적인 구성은 다음 장의 설명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봐야 하나요?

9월평가원, 수능 직전만이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 시기에는 기출 문제에 양보하세요.

COMPOSITION

프롤로그

작가의 말
설명서
교재 이용방법
독서 EBS 학습의 필요성
2019 수능연계 지문, 2020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변형문제

본문

유형편 042P
실전편 062P

부록

164p
화작문 EBS 학습의 필요성
화작문 제재 정리
화작문 제재 중 생소한 33개 개념 한 줄 요약+화작문 수록 문학작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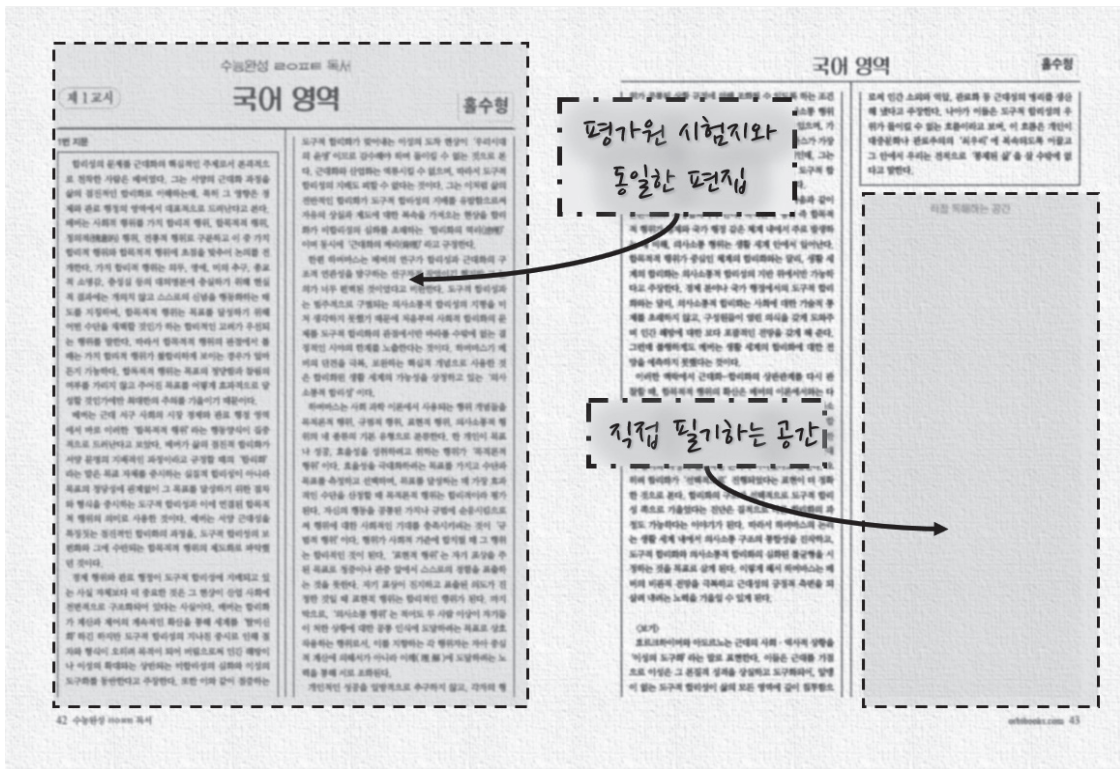
에필로그

174p
검토진의 서평과 칼럼
작가의 말

별책부록

수능완성 문학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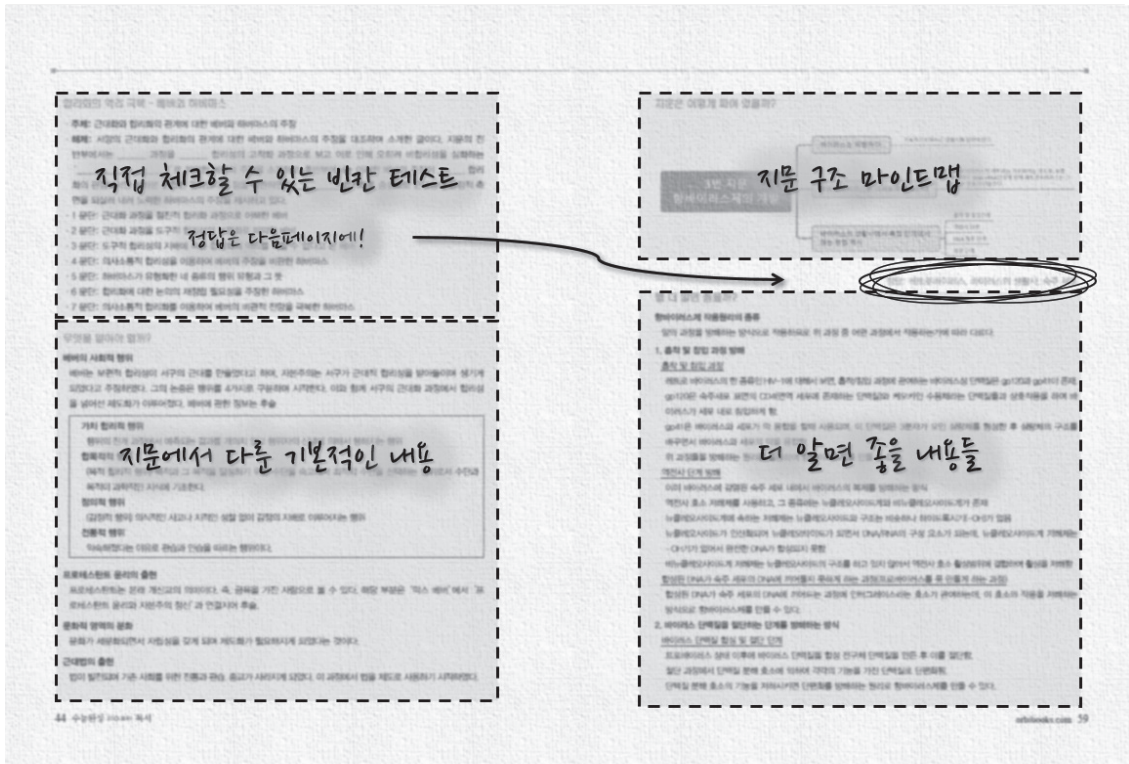
설명서



첫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는 평가원 스타일로 편집된 수완 독서 본문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실제 시험을 치르듯이 독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백을 둔 이유는 지문을 모델링 하거나 필기를 위한 공간입니다. 수험생만의 독해 방법을 위한 공간입니다. 스포 방지를 위해서 제목은 일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인드맵 아래에 빈칸 테스트 정답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록에 정답을 모아 기재하였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는 지문에 대해서 잘 숙지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빈칸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완에서 물어봤거나 중요한 개념을 수록했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약간의 부연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개념을 다시 보시면서 자신이 독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페이지에는 지문 구조를 마인드맵으로 대략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아래에는 보다 나아가서 숙지하면 좋을 개념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독서 EBS 학습의 필요성

우선, 세 지문을 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 지문은 매우 친근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지문의 기억을 바탕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지문 독해에 도움을 느끼실 수도 있으며, 세 번째 지문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지문에 의해 세 번째 지문의 친근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한시간 25분. 문제는 없지만, 실제 모의고사/수능을 보듯이 독해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나올까 예상하며 독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능완성

리
포트

독서

1번 지문

합리성의 문제를 근대화의 핵심적인 주제로서 본격적으로 천착한 사람은 베버였다. 그는 서양의 근대화 과정을 삶의 점진적인 합리화로 이해하는데, 특히 그 영향은 경제와 관료 행정의 영역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난다고 본다. 베버는 사회적 행위를 가치 합리적 행위, 합목적적 행위, 정의적(情意的) 행위, 전통적 행위로 구분하고 이 중 가치 합리적 행위와 합목적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가치 합리적 행위는 의무, 명예, 미의 추구, 종교적 소명감, 충성심 등의 대의명분에 충실하기 위해 현실적 결과에는 개의치 않고 스스로의 신념을 행동화하는 태도를 지칭하며, 합목적적 행위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채택할 것인가 하는 합리적인 고려가 우선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합목적적 행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가치 합리적 행위가 불합리하게 보이는 경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합목적적 행위는 목표의 정당함과 참됨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주어진 목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인가에만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베버는 근대 서구 사회의 시장 경제와 관료 행정 영역에서 바로 이러한 ‘합목적적 행위’라는 행동양식이 집중적으로 드러난다고 보았다. 베버가 삶의 점진적 합리화가 서양 문명의 지배적인 과정이라고 규정할 때의 ‘합리화’라는 말은 목표 자체를 중시하는 실질적 합리성이 아니라 목표의 정당성에 관계없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와 형식을 중시하는 도구적 합리성과 이에 연결된 합목적적 행위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베버는 서양 근대성을 특징짓는 점진적인 합리화의 과정을, 도구적 합리성의 보편화와 그에 수반되는 합목적적 행위의 제도화로 파악했던 것이다.

경제 행위와 관료 행정이 도구적 합리성에 지배되고 있는 사실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상이 산업 사회에 전면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베버는 합리화가 계산과 제어의 계속적인 확산을 통해 세계를 ‘탈미신화’ 하긴 하지만 도구적 합리성의 지나친 중시로 인해 절차와 형식이 오히려 목적이 되어 버림으로써 인간 해방이나 이성의 확대와는 상반되는 비합리성의 심화와 이성의 도구화를 동반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와 같이 점증하는

도구적 합리화가 빚어내는 이성의 도착 현상이 ‘우리시대의 운명’ 이므로 감수해야 하며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본다. 근대화와 산업화는 역류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도구적 합리성의 지배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처럼 삶의 전반적인 합리화가 도구적 합리성의 지배를 유발함으로써 자유의 상실과 제도에 대한 복속을 가져오는 현상을 합리화가 비합리성의 심화를 초래하는 ‘합리화의 역리(逆理)’이며 동시에 ‘근대화의 배리(背理)’라고 규정한다.

한편 하버마스는 베버의 연구가 합리성과 근대화의 구조적 연관성을 탐구하는 선구자적 작업이긴 했지만 그 논의가 너무 편벽된 것이었다고 비판한다. 도구적 합리성과 범주적으로 구별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지평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회적 합리화의 문제를 도구적 합리화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시야의 한계를 노출한다는 것이다. 하버마스가 베버의 단점을 극복, 보완하는 핵심적 개념으로 사용한 것은 합리화된 생활 세계의 가능성을 상징하고 있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다.

하버마스는 사회 과학 이론에서 사용되는 행위 개념들을 목적론적 행위, 규범적 행위, 표현적 행위, 의사소통적 행위의 네 종류의 기본 유형으로 분류한다. 한 개인이 목표나 성공, 효율성을 성취하려고 취하는 행위가 ‘목적론적 행위’이다.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수단과 목표를 측정하고 선택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산정할 때 목적론적 행위는 합리적이라 평가된다. 자신의 행동을 공통된 가치나 규범에 순응시킴으로써 행위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것이 ‘규범적 행위’이다. 행위가 사회적 기준에 합치될 때 그 행위는 합리적인 것이 된다. ‘표현적 행위’는 자기 표상을 주된 목표로 청중이나 관중 앞에서 스스로의 경험을 표출하는 것을 뜻한다. 자기 표상이 진지하고 표출된 의도가 진정한 것일 때 표현적 행위는 합리적인 행위가 된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행위’는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자기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공통 인식에 도달하려는 목표로 상호 작용하는 행위로서, 이를 지향하는 각 행위자는 자아 중심적 계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해(理解)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통해 서로 조화된다.

개인적인 성공을 일방적으로 추구하지 않고, 각자의 행

위가 공통된 상황 규정에 의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아래서 개인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다. 의사소통 행위의 목표는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 이해와 합의에 있으며, 가장 이성적인 행위이다. 이들 행위 유형 중 하버마스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목적론적 행위와 의사소통 행위인데, 그는 목적론적 행위와 합목적적 행위를 동일시한다. 도구적 합리성이 합목적적 행위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합리화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근본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목적론적 행위 즉 합목적적 행위가 경제와 국가 행정 같은 체계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데 비해, 의사소통 행위는 생활 세계 안에서 일어난다. 합목적적 행위가 중심인 체계의 합리화와는 달리, 생활 세계의 합리화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지반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경제 분야나 국가 행정에서의 도구적 합리화와는 달리, 의사소통적 합리화는 사회에 대한 기술적 통제를 초래하지 않고, 구성원들이 열린 의식을 갖게 도와주며 인간 해방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전망을 갖게 해 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베버는 생활 세계의 합리화에 대한 전망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대화-합리화의 상관관계를 다시 관찰할 때, 합목적적 행위의 확산은 베버의 이론에서와는 다른 위상을 갖게 된다. 하버마스는 생활 세계에서의 의사소통적 합리화와 경제와 국가 행정 부분에서의 합목적적 합리화를 구별하고, 이 둘을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버마스는 '합리화의 역리'가 결코 근대적 합리화 과정의 필연적인 논리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오히려 합리화가 '선택적으로' 진행되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으로 본다. 합리화의 구조가 선택적으로 도구적 합리성 쪽으로 기울었다는 진단은 질적으로 다른 합리화의 과정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하버마스의 논리는 생활 세계 내에서 의사소통 구조의 통합성을 진작하고, 도구적 합리화와 의사소통적 합리화의 심화된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된다. 이렇게 해서 하버마스는 베버의 비판적 전망을 극복하고 근대성의 긍정적 측면을 되살려 내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된다.

〈보기〉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근대의 사회·역사적 상황을 '이성의 도구화'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들은 근대를 기점으로 이성은 그 본질적 성격을 상실하고 도구화되어, 알맹이 없는 도구적 합리성이 삶의 모든 영역에 깊이 침투함으

로써 인간 소외와 억압, 관료화 등 근대성의 병리를 생산해 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들은 도구적 합리성의 위위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보며, 이 흐름은 개인이 대중문화나 관료주의의 '쇠우리'에 복속되도록 이끌고 그 안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통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직접 독해하는 공간

합리화의 역리 극복 - 베버와 하버마스

- **주제:** 근대화와 합리화의 관계에 대한 베버와 하버마스의 주장
- **해제:** 서양의 근대화와 합리화의 관계에 대한 베버와 하버마스의 주장을 대조하며 소개한 글이다. 지문의 전반부에서는 _____ 과정을 _____ 합리성의 고착화 과정으로 보고 이로 인해 오히려 비합리성을 심화하는 ‘_____’로 파악한 베버의 주장을 소개하고,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베버의 주장이 _____ 합리화의 관점에서만 바라본 편협한 것이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_____ 합리화를 중심으로 근대성의 긍정적 측면을 되살려 내려 노력한 하버마스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 1 문단: 근대화 과정을 점진적 합리화 과정으로 이해한 베버
- 2 문단: 근대화 과정을 도구적 합리성의 보편화로 파악한 베버
- 3 문단: 도구적 합리성의 지배에 따른 합리화의 역리를 피할 수 없다고 본 베버
- 4 문단: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이용하여 베버의 주장을 비판한 하버마스
- 5 문단: 하버마스가 유형화한 네 종류의 행위 유형과 그 뜻
- 6 문단: 합리화에 대한 논의의 재정립 필요성을 주장한 하버마스
- 7 문단: 의사소통적 합리화를 이용하여 베버의 비관적 전망을 극복한 하버마스

무엇을 알아야 할까?

베버의 사회적 행위

베버는 보편적 합리성이 서구의 근대를 만들었다고 하며, 자본주의는 서구가 근대적 합리성을 받아들이며 생기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논증은 행위를 4가지로 구분하며 시작한다. 이와 함께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 합리성을 넘어서서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베버에 관한 정보는 후술

가치 합리적 행위

행위의 전개 과정에서 예측되는 결과를 개의치 않고 행위자의 신념에 의해서 행해지는 행위

합목적적 행위

(목적 합리적 행위)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숙고해서 최적의 수단을 선택하는 행위로서 수단과 목적이 과학적인 지식에 기초한다.

정의적 행위

(감정적 행위) 의식적인 사고나 지적인 성찰 없이 감정의 지배로 이루어지는 행위

전통적 행위

익숙해졌다는 이유로 관습과 인습을 따르는 행위이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출현

프로테스탄트는 본래 개신교의 의미이다. 즉, 금욕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다. 해당 부분은 ‘막스 베버’에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과 연결지어 후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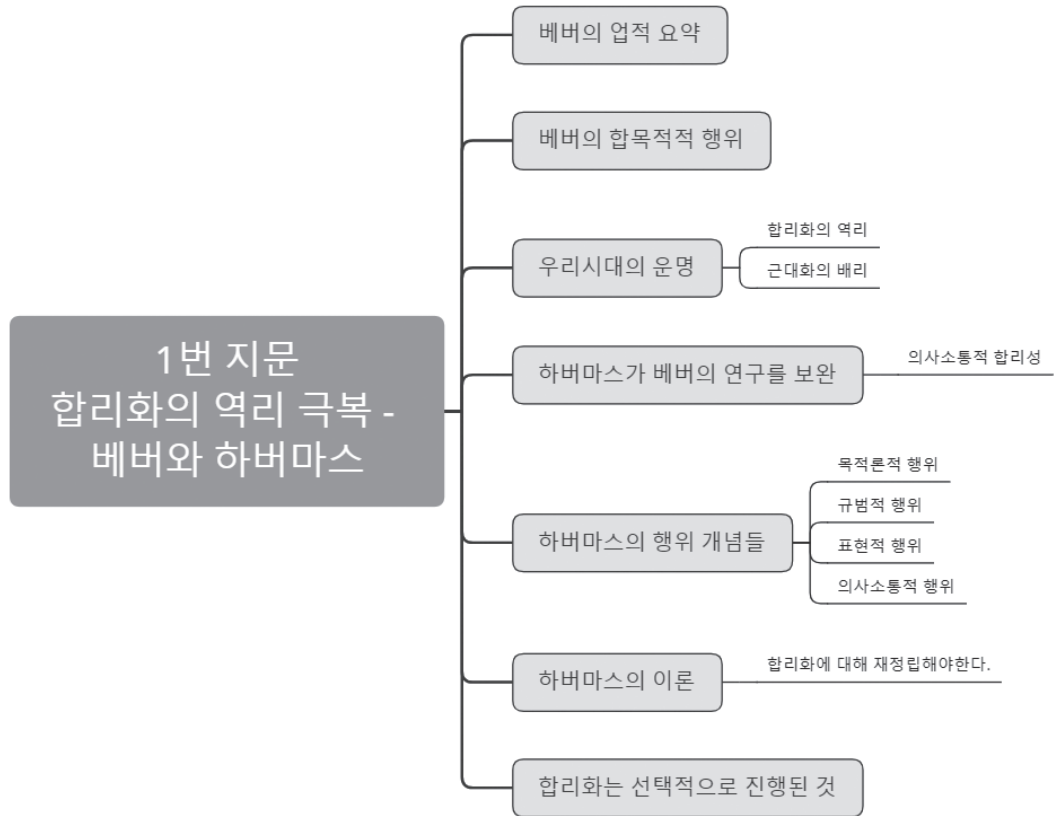
문화적 영역의 분화

문화가 세분화되면서 자립성을 갖게 되며 제도화가 필요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근대법의 출현

법이 발전되며 기존 사회를 위한 전통과 관습, 종교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법을 제도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지문은 어떻게 짜여 있을까?



정답: 근대화, 도구적, 합리화의 역리, 도구적, 의사소통적

덜 더 알면 좋을까?

척화파와 주화파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한 조선이 취해야 할 두 입장이다. 예조판서 김상헌으로 대표되는 척화파는 명분을 중시하며 맞서 싸우자고 하였고, 이조판서 최명길로 대표되는 주화파는 실리를 중시하며 항복하자고 하였다. 결론은 최명길이 항복 문서를 작성하며 항복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런 사회적 현상을 사회적 행위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프랑크푸르트 학파

신 마르크스주의 사회 이론가 집단으로, 프랑크푸르트 사회 연구소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수완 본문과 보기에 제시된 많은 학자가 본 학파 출신이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사회심리학자인 막스 호르크하이머, 테오도어 아도르노, 에리히 프롬, 허버트 마르쿠제 등이 있다. 1960년대부터 위르겐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대한 ‘현대성에 대한 철학적 담론’을 지표로 발전하였다. 개인의 업적은 후술될 것이다. 본 학파의 경우, 마르크스주의를 정신분석학(프로이트)에 접목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대부분 매우 부유한 집안 출신이다. 또한, 직접적인 혁명을 일으킨 적이 없고, ‘이론’에만 관심이 있었다. 즉, 현대사회의 직업으로 보자면 정치인이 아닌 비평가였다고 볼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

실증주의와 과학주의적 신앙에 대한 인식론적-방법론 비판

- 실증주의는 사회생활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부적절
- 실증주의는 실제 있는 것에만 주의 집중함으로써 현존 사회질서의 용인, 변혁의 방해 그리고 정치적 침묵을 초래
- 실증주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배, 즉, ‘기술주의 지배’를 지탱 또는 창출하게 됨

과학과 기술이 관료주의적 지배 형태를 창출하는데 이데올로기적 영향력 끼치는데 비판

문화산업에 대한 비판

문화 산업에 대한 비판은 문화산업론으로 더 알려져 있다.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설정 중 하나로, 문화가 대중을 포로로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위적인 대중문화 대신 고상한 기존 문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르겐 하버마스(1929~)

하버마스는 언어행위의 성공을 다르게 정의하였는데, ‘청자의 이해 + 화자의 의도가 이루어짐’으로 정의하였다. 즉, 문법적으로 불가능한 언어행위가 어떻게 상식적으로 가능하게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인간의 관심을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인간 인식 관점에 대한 하버마스의 3단계 범주화

도구적 관심: 의미는 경험적 사실이다. 타당성은 기술적인 이용 가능성이다.

실전적 관심: 일상적 언어에서 교환된 메시지의 해석을 통해 성취된 의미이다.

해방에의 관심: 자율성, 책임성 등에 대한 관심이다.

막스 호르크하이머(1895~1973)와 테오도어 베 아도르노(1903~1969)

‘계몽의 변증법’의 두 저자이다. ‘계몽의 변증법’에서 계몽은 인간이 외부로부터 주어진 운명을 탈피하고 주체가 되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라 하였다. 신화는 그 자체가 계몽이었으며, 계몽은 신화로 퇴화한다는 뜻이다. 그 이유는 계몽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보다 자세히 서술하자면, 신화 이전에 인간은 동물신을 섬겼다. 하지만, 신화가 생겨나며 인간은 사람 형상을 한 신을 섬기게 되었고, 인간을 섬기게 된 것이다. 이때, 신은 자연을 섬기게 되므로, 신화로 인해 자연을 지배하게 되었다. 따라서 신화가 계몽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신화가 인간

을 지배하게 되었고, 결국 다시 신화로 퇴화하는 것이다.

단군신화를 보자. 처음엔 호랑이와 곰(자연)이었다. 하지만, 결국 사람(신화)으로 되었다. 그 이후 고조선(계몽)이 설립되고 그 신화를 기반으로 기술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를 이루기 위해 개인은 국가의 의무(농사 등 각자 맡은 일)을 이행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읽어읽기

(가)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20세기에 출현한 정신과학의 업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 책은 원래 논문으로서 1904년과 1905년에 두 차례로 나뉘어 처음 발표되었던 것인데 베버의 사망 직후인 1920~1921년에 3권으로 출판된 베버의 ‘종교사회학 논문집’ 제 1권(1920) 첫 부분에 실려 지금과 같은 내용과 형식을 갖게 되었다. 이 책은 논문으로 발표될 때부터 당시 서구의 지성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오늘날까지 자본주의의 발생과 발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귀중한 고전이 되어 있다.

베버에 따르면 근대 시민계급은 종교적인 측면에 있어서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종교 개혁을 수용한 사람들이었다. 프로테스탄티즘은 금전 추구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에 윤리적인 통제를 가함으로써 향락, 방탕, 재산을 낭비하는 일을 절제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금욕하는 것을 윤리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이렇게 얻은 자산의 양은 그의 신앙의 진실성을 나타낸다고 본다. 이는 재산의 획득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하여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의 발전을 돕는다. 이와 같이 신이 내리신 직업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여야 한다는 청교도적 세계관은 이러한 자본주의 정신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되었다.

강성화,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6, 철학사상 별책 제 7권 제 18호

(나) 베버의 학문적 관심은 사회과학 방법론의 확립과 근대 자본주의의 이해에 있다. 그는 사회과학방법론을 통하여 서구 사회에 대하여 고찰하려고 하였는데, 그는 가치판단을 배격할 것과 이념형과 인과성이라는 사회학적 방법론을 제시했다. 즉 그는 가치판단에 관한 논쟁을 통해 사회과학의 객관적 존재이유를 확립하고자 했으며 무한한 소재 가운데 본질적인 것만을 택하여 순수화시킴으로써 ‘순수한 유형’ 또는 이념형에 입각한 인식수단의 순수화를 추구했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그의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였고 근대 자본주의 정신에 대하여 이념형, 인과성 등의 방법론으로 나타난다. 그의 글은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과의 관계를 밝혔고, 학자들이 여러 나라 그리고 여러 시대의 경제현상 및 경제정신을 근대 자본주의 정신에 관한 베버의 이념형과 견주어 연구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때 그의 글은 획

기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근대 자본주의 정신의 주요 원천으로 개신교, 특히 칼빈주의를 꼽고, 칼빈주의에 입각한 정신생활의 변혁이 근대화과정을 주도적 동력이 되었음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베버는 인간행위를 사회학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 사회적 행위라는 대상을 설정하여 해석학적으로 이해하고 결과를 인과적으로 설명하려는 독특한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경험적 현실에 대한 사유구성체로서 개념과 현실 사이에는 비합리적 단절이 놓여있고, 그러한 제약 속에서 오히려 이념형(ideal type)이라는 인식수단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념형은 여러 관점들 중 특정한 측면을 강조 하거나, 수많은 구체적 개개 현상들을 종합하여 일면적으로 강조된 관점에 따라 하나의 통합된 분석적 구조물을 만들어 냄으로써 형성된 것이다.

사회과학적 연구의 과정에서 일정한 측면에 대하여 강조하게 되는 발견인식적 도구로서의 ‘이념형’은 실제 경험에서 찾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개념적 순수형으로서 탐구대상에 대하여 경험적 유효성을 측정하는 도구가 된다. 따라서 이념형은 실제에 대한 평가의 도구로서는 그 의의가 있지만, 경험적으로 타당한 절대적 경향으로 베버가 상정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념형’의 예로서 사회적 행위의 유형, 법유형론,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관계, 법과 자본주의의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 베버는 법을 형식적으로 합리적인 법,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법, 형식적으로 합리적인 법,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법으로 나누고 형식적으로 합리적인 법이 자본주의 발전과 긴밀하게 관련된다고 주장하였다. 형식적으로 합리적인 법은 “일정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명백히 일반적인 성격이 강조되고 법개념에 있어서 추상적 규칙의 형식이 강조되는 등 형식적인 면에서 엄격한 법률적 형식주의가 강조되는 법”이다.

“베버의 법: 비합리적인 법, 실질적 비합리적인 법, 형식적 합리적인 법, 실질적 합리적인 법”

베버는 형식적 합리적인 법을 가진 국가에서 자본가들이 미래에 대한 안정적 예측 하에 적극적인 투자와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법에 의해 마련되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달한다고 주장한다. 현실에서 완벽한 형식적으로 합리적인 법이 존재하기는 어렵지만, 베버는 순수한 유형으로서의 ‘형식적으로 합리적인 법’을 이념형으로 상정한 것이다.

‘이념형’과 함께 베버가 방법론으로 사용한 것은 ‘인과성’의 개념이다. 그는 사회적 행위와 경제조직의 형태들 간에 선택적 친화성의 정도에 대해 일반화 할 수 있고, 양자가 서로에 대해 적합한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선택적 친화성은 두 개의 현상에 일정한 공통성 내지 내적 친화 상태에 있는 비율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베버는 인과성을 이러한 선택적 친화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역사적으로도 인과성의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데, 일정한 시간적 흐름 속에서 어떤 하나의 현상이 다른 현상 사이에 유리한 조건이 된다면 두 현상은 역사학적 인과성이 있다고 한다. 베버는 두 가지 다른 현상들이 의미적으로 적합하고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연관될 때 적합한 인과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의미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면 두 현상이 아무리 개연적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계적 개연성에 불과하다고 한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베버는 프로테스탄트의 독특한 직업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객관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근대 유럽의 도시의 자본주의 발전과 그들의 종교적 배경을 고찰하여 증명하려 하였고, 이러한 연구는 종교사회학적으로 현대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요약)

‘이념형’과 ‘인과성’이라는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이 현실세계와 완전히 부합하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를 바라보는 유효한 학문적 도구로서 자리매김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베버의 사회과학적, 역사학적 방법론은 이 글에서 살펴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고,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이라는 이념형과 인과성의 측면에서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윤진숙, Max Weber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 법학논총 제 24집, 2010년 7월 1~18,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막시밀리안 카를 에밀 베버(1864~1920)

현재 알려진 문구 ‘좌파의 마르크스, 우파의 막스 베버’의 그 베버이다. 둘은 정치에 대해서 대립한 적이 없다. 그의 가장 유명한 책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으로, 종교 사회학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다. 그의 주요 업적으로는 종교사회학, 정치 체제, 조직 이론, 행위

의 합리화에 대한 연구가 있다. 행위의 합리화와 관련된 부분이 수완 본문에 서술된 부분이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막스 베버의 저서 중 가장 유명한 저서이다. 간단히 말하면 서구의 자본주의는 16세기 개신교의 윤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을 받쳐주는 사례는 근대 사회의 자본주의 확산 속도에 있다. 자본주의가 가장 빠르게 나타난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에서는 칼뱅주의(개신교)가 강했고, 비교적 늦게 나타난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는 가톨릭이 강했기 때문이다.

직접 독해하는 공간

별책

사용법

1. 현대운문
2. 고전운문
3. 현대산문
4. 고전산문
5. 극, 수필

설명서

부록에 여백이 많습니다. 모두 필기하는 공간으로, EBS작품에 대한 것을 단권화 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운문에서는 평가원 스타일로 편집된 현대시 전문과 해당 내용에 대한 짧은 소개가 있습니다. 여백에는 필기와 함께 실전 모의고사 등에서 접한 변형문제를 붙여 오답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전문문에서는 평가원 스타일은 아니지만, 큼지막한 글씨로 현대어 해설이 없는 고전문문 전문을 담았습니다. 2019학년도 일동장유가는 상당히 긴 가사로, 전문 학습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시와 마찬가지로 짧은 소개가 실려있고, 전문 아래에는 어려운 시어를, 우측 여백에는 고사 등 관련된 내용을, 다른 여백에는 오답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산문과 고전산문, 극수필에서는 작품에 대한 줄거리와 해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표현상 특징 등을 정리하고, 줄거리는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작품의 경우, 교재 본문과 다른 버전이 수록된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의미상 큰 차이가 없으므로 유동적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1. 현대운문

출수형 **국어 영역**

저문 강에 삼을 씻고

정희성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떠나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삼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셋강바다 씩은 물에
달이 뜨는 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삼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다시 어둠이 돌아야 한다

1945~
저문 강에 삼을 씻고는 1978년도 시
한철용생,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생활고에 지침!!!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성찰적, 회고적
전제	강물	주제	가난한 노동자의 삶의 비애
특징	단연시 자연물의 이미지 시간의 흐름		

1. 현대운문

흘수형

국어 영역

저문 강에 삼을 씻고

정희성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삼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셋강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 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삼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노동자가 느끼는 고단한 삶의 비애

‘저문 강에 샅을 씻고’는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민중의 삶과 비애**를 차분하고 정제된 어조로 그려 낸 작품이다. 노동을 마친 화자는 흐르는 강물에 샅을 씻으며 삶에서 비롯된 슬픔을 씻어 내고 싶어 한다. 화자는 해질녘 강과 같이 저물어 가는 자신의 삶에서 무기력감과 비애를 느낀다. 그러나 화자는 샅강 씻은 물에 달이 떠서 비치는 것을 바라보며 암담하고 고단한 일상 역시 자신이 밟고 살아야 할 현실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